

연령통합 지표로 본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¹⁾

Level of Age Integration in Korea Based on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 System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사회 영역별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동시에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 또한 요구된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이 이러한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중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사회 영역별로 인구고령

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동시에 근본

1) 본고는 정경희·황남희·이선희·김주현·정순돌(2015).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임.

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 또한 요구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라는 엄격한 구분에 기초한 연령분리적인 사회이다²⁾. 이러한 사회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구분체계에 기초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가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구성원리의 변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동안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사회는 연령분절성과 연령통합성이라는 양 극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 어떤 사회는 상대적으로 더 연령통합적인 성격일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차별적 성격이 강한 사회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통합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를 통하여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연령통합 지표 체계

개발된 연령통합지표 체계는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이라는 3개의 구성요소 하에 9개 영역과 20개의 개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³⁾. 구성요소로는 Riley et al. (1994)⁴⁾가 제시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 외에도 연령형평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이는 연령간의 형평성 제고가 연령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각 구성요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영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적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연령유연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으로 인하여 진입이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과 고용 영역을,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

2) 연령통합사회와 연령분리사회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는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와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pp.11~2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3) 구체적인 개발과정은 정경희·황남희·이선희·김주현·정순돌(2015)에 제시되어 있음.

4) Riley, M. W., Kahn, L. R., & Foner A.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Y: Wiley.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주요한 활동의 종류를 반영한 3개의 영역이 설정되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일컫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 더불어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 내 연령간 이해와 존중 또한 활발한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아를 중심으로 한 층위(가족, 일터, 지역사회)별로 영역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경우 사회성원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와 관련한 물리적·문화적 기반을 모두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

표 1. 연령통합지표의 구성

구성 요소	영역	측정목표	개별지표	한국	국제 비교	세계열 비교
연령 유연성	1. 교육	연령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정도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	○	×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도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	○	×
	2. 경제 활동	연령에 의한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3. 연령별 실업률	◎	○	○
		연령에 의한 안정적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	×	×
	3.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연령 보편성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	○
		정치 참여의 연령 보편성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	○	×
		문화여가활동의 연령 보편성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	○	×
연령 다양성	1. 가족	가족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정도	2-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	×	×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	2-2. 가족교류 시간	△	△	×
	2. 일터	다양한 연령의 직장동료간 상호작용 기회	2-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	×	×
	3. 지역 사회	연령간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대중교통 접근성)	2-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	○	×
		연령간 상호작용의 문화적 기반	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	○	×
		연령집단간 사회적 통합(다양한 연령군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 가능)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	×
연령 형평성	1. 건강	신체활동실천에 있어 연령별 차이의 정도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	○	×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	○	×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	○	○
	2. 교육·정보화	인적자본 수준의 연령별 차이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	○	○
		정보 습득·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	×	×
	3. 소득·주거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	○	○
		주거기본선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	×	×
3개 구성요소	9개	20개				

주: ◎=정의에 상응하는 자료원 존재, ○=일부 연령군에 대한 자료원 존재, △ = 정의에는 상응하지 않으나 유사한 내용의 자료원 존재, ×=관련 자료원 없음

동 및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을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반을, 각 연령군의 동등한 사회적 위상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적 기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령 유연성은 가족, 일터, 지역사회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연령형평성은 연령간의 삶의 질이 균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즉,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의 확보를 위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건강, 교육·정보화, 소득·주거의 3개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령통합지표체계에 포함된 각 개별지표의 측정목표와 지표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산식은 전연령 평균에 비하여 각 연령군이 보이는 차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연령별 차이가 클수록 연령분절적인 정도가 큰 것으로 산출된다. 20개 지표중 13개의 개별지표는 정의에 상응하는 자료원이 있으며, 이중 11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5개의 개별지표는 시계열 변화 파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4개 개별지표는 일부 연령군에 대한 통계자료가, 2개는 정의에는 상응하지 않지만 유사한 내용의 자료가 존재하며, 1개 개별지표는 관련된 자료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3.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개별지표중 가용통계원이 있는 경우 적용한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현황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로 연령통합수준을 살펴보았는데,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우는 정의에 의하여 산출된 연령통합 수준을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 위상을 살펴보았고(표 2), 이중 시계열적 변화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다. 단, 정의에 상응하는 통계원이 아닌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살펴보았다.

가. 연령 유연성

전반적으로 한국의 연령유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관 등록률은 모든 국가에서 낮은 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준이 낮다. 5~14세군의 교육기관 등록률이 99%이고 15~19세군은 87%로 높은 수준이지만 20~29세군의 경우는 31%로 큰 차이를 보이며 30~39세군의 경우는 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2).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30대 이후와 30세 이전 연령층간의 교육기관 등록률의 차이가 적은 편으로, 전반적으로 유연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참여에 있어서의 연령유연성 수준은 미국, 일본 및 스웨덴에 비하여 매우 낮고 독일이나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3).

표 2.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	-	-	-	-	-
2세 이하	37	m	n	8	a	4
3~4세	86	52	86	93	93	76
5~14세	99	97	100	99	99	98
15~19세	87	81	m	90	86	83
20~29세	31	27	m	33	36	28
30~39세	2	6	m	4	14	6
40세 이상	n	1	m	n	3	1

주: 1) 2012년 기준임.

2) 전체 인구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3) 교육기관 등록률은 OECD교육지표의 취학률로 파악함. 연령별취학률(enrolment rates) = (해당 연령대 학생 수/해당 연령대 인구)×100

4) 2010년 자료부터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의 원아가 포함됨.

5) n: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 m: 해당 데이터가 없음. a: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의 C장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p.312.

한편, 경제활동 영역의 경우, 고용기회에 있어 서의 연령 유연성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연령 유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양호한 편이며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연령유연성(연령별 실업률 차이) 또한 양호한 편이다(표 3). 또한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은 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 2004년에 부터는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연령유연성이 낮아지는 경향성은 발견된다(그림 1).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종사상 지위관련 6개 종사상지위(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 연령별 안

정적 고용률은 49.8%이며,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의 차이가 매우 커서 65세 이상은 12.4%인 반면 25~34세는 68.7%이다(그림 2). 이러한 결과들은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양적 측면은 양호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이 발견된다. 비교 국가 중 연령별 실업률 차이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일본으로, 2000년 2.3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분석기간 내내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독일은 2004년에는 연령별 실업률 차이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2000년에는 OECD

표 3. 연령통합수준 국제비교

구성 요소	영역	개별지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연령 유연성	교육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¹⁾	11.8	6.4	6.9	10.2	9.4	10.4
	경제활동	연령별 실업률 ²⁾	3.0	3.3	1.3	2.2	6.7	3.9
	사회참여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³⁾	1.1	4.2	0.9	1.9	4.7	1.1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³⁾	10.4	10.4	10.3	6.3	7.7	3.2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³⁾	7.5	8.4	5.2	9.3	4.2	7.4
연령 다양성	지역사회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³⁾	1.7	0.6	0.3	1.2	0.7	0.2
연령 형평성	건강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⁴⁾	4.9	11.0	-	-	-	-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⁵⁾	2.6	1.8	-	-	-	-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⁶⁾	2.0	8.3	1.6	4.2	1.5	-
	교육·정보화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⁷⁾	20.1	1.3	0.5	5.1	6.9	-
	소득·주거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⁸⁾	13.7	2.1	4.1	3.2	4.2	1.7

주: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로 동일지표 내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연령유연성·연령다양성·연령형평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단, 표준화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지표 간 비교는 어려움.

자료: 1)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p.399.

2)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

3) World Value Survey(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4)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Adults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5)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 Europe Social Survey(2012)

(3)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4). Depression in the U.S. Household Population, 2009~2012.

6)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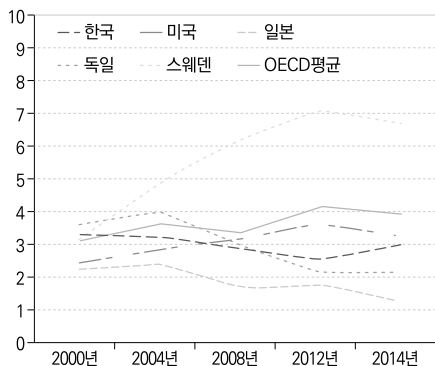
(2) 독일·스웨덴: Europe Social Survey(2012)

(3)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7)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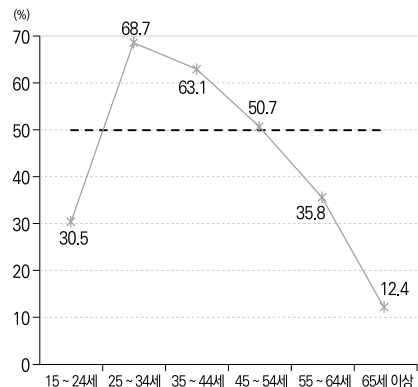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4).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1. 실업률에서의 연령 유연성의 변화 추이:2000~2014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

그림 2. 한국의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자료: 통계청(201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표 4.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연령별 투표율)과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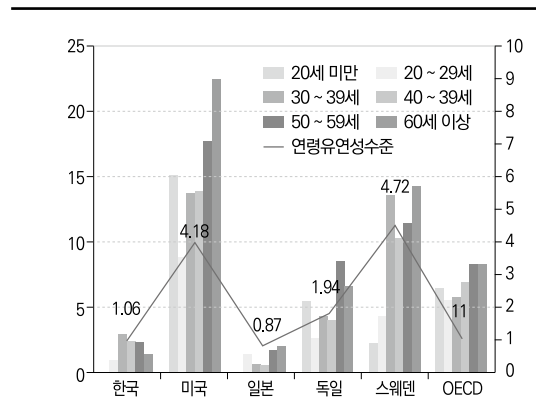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²⁾
전체 인구 ¹⁾	85.0	79.9	90.3	83.4	93.8	88.7
20~29세	67.6	64.4	78.4	80.4	89.2	79.1
30~39세	83.4	71.5	87.6	70.1	92.4	86.2
40~49세	93.9	81.8	92.0	80.0	93.9	90.2
50~59세	93.2	87.5	93.0	86.6	95.8	91.6
60세 이상	94.6	92.4	96.6	92.7	98.9	93.8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²⁾
전체 인구 ¹⁾	15.0	23.2	19.2	30.9	30.9	24.0
20세 미만	31.8	43.4	30.6	50.0	36.4	41.2
20~29세	16.1	24.7	20.8	39.5	31.5	28.1
30~39세	17.0	24.4	17.7	35.8	30.8	23.2
40~49세	15.4	24.0	15.7	31.8	36.9	23.8
50~59세	16.6	21.2	17.5	27.7	24.6	21.7
60세 이상	8.3	20.1	21.5	24.4	29.8	21.1

주: 1) 2012년 기준임.

2)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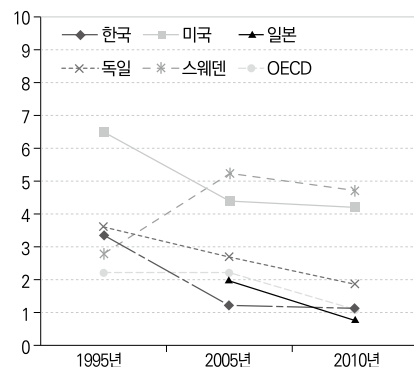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그림 3.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그림 4. 자원봉사 참여율에서의 연령 유연성의 변화 추이: 1995~2010년



주: 1) 가용자료원의 경우, 5년 주기로 공표되나 4차년도 조사(2000년)에서 본 문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1995년 조사에서 제외되어 본 분석에서도 제외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을 훨씬 웃돌며 비교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연령별 실업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절대적 참여수준은 낮고 연령군별 차이는 큰 국가로 나타났다(표3).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군의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은 다른 연령군의 비해서는 낮지만, 투표를 통한 정치활동의 참여는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교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연령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와 그림3).

사회참여활동 중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국가의 시계열 변화 파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도에는 연령별 차이가 3.4였던 것에 반해, 2005년에는 1.2, 2010년에는 1.1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 이같은 경향은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전 연령층에 있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이다. 한편, 독일과 미국은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 전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최근 들어 연령별 차이가 커지고 있다.

나. 연령 다양성

우리나라의 연령다양성의 경우 가족, 일터, 지역사회 모두에서 그 수준이 낮다⁵⁾. 일터의 경우, 우리나라의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본 결과, 30세 미만 및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38.6%로 우리나라 전체의 동일 인구구성 비율인 59.2% 보다 20.6%p 낮은 수준으로 연령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이상 중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71%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표 5)⁶⁾.

연령다양성의 확보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을

표 5.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71	62	60	69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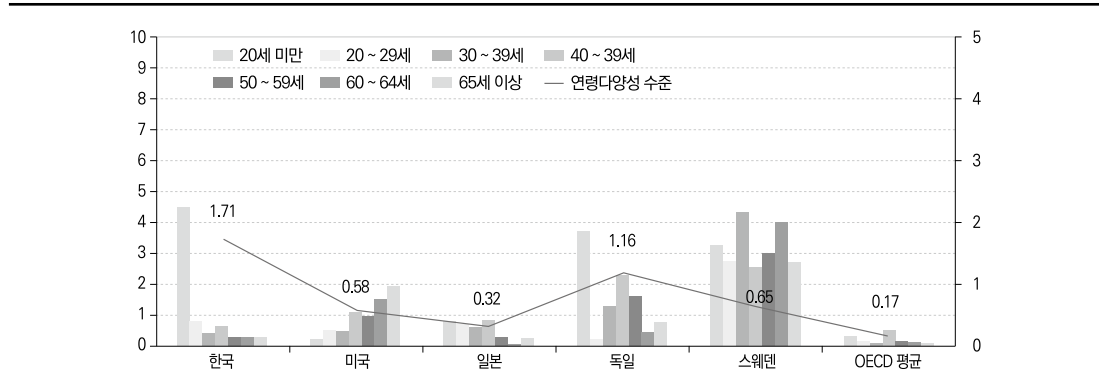
주: 2012년도 기준임.

자료: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 Watch Index 2015.

5) 가족 영역은 정의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다양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희 외 (2015)에 기술되어 있음.

6) 이는 국가의 면적이나 대중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한 것 일수도 있고, 주관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그림 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파악하기 위하여 살펴본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 평가 차이가 크다(그림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가 사회의 중심이

라는 평가가 강력하며, 20대나 70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70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이들 연령대가 노인세대에 대하여 긍

표 6.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 평가

(단위: %)

구분	20대의 사회적 위상						40대의 사회적 위상						70대의 사회적 위상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OECD 평균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OECD 평균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4.35	5.37	5.10	4.76	5.82	5.23	7.14	6.94	6.99	7.19	7.13	6.97	4.38	5.99	5.52	4.98	4.28	5.27
20세미만	5.44	5.18	5.28	4.82	5.97	5.57	8.30	7.08	6.80	7.04	6.89	6.97	3.21	7.05	5.18	4.38	4.35	5.44
20~29세	4.41	5.56	5.17	4.45	5.91	5.37	7.51	6.84	7.05	7.15	7.07	6.97	4.01	5.66	5.41	4.80	4.54	5.30
30~39세	4.49	5.28	5.38	4.51	5.83	5.23	7.14	7.01	7.15	7.08	7.21	6.98	4.71	5.91	5.14	4.79	3.68	5.20
40~49세	4.09	5.18	5.01	4.49	5.65	5.11	6.82	7.02	6.90	6.97	6.99	6.89	4.42	6.33	5.55	4.93	4.39	5.34
50~59세	4.35	5.24	5.05	4.85	5.75	5.15	7.16	6.81	7.03	7.27	7.07	6.98	4.49	6.05	5.54	4.98	4.26	5.22
60~64세	4.30	5.58	4.87	4.97	5.98	5.18	7.15	6.92	6.97	7.28	7.27	6.98	4.43	5.80	5.63	4.98	3.98	5.10
65세이상	4.34	5.52	5.00	5.13	5.85	5.26	6.94	6.97	6.85	7.37	7.25	7.03	4.22	5.89	5.96	5.27	4.51	5.30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0.43	0.17	0.16	0.25	0.11	0.15	0.48	0.09	0.12	0.14	0.13	0.04	0.49	0.45	0.26	0.27	0.29	0.10

주: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는 점수의 평균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정적이지 않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다. 연령형평성

교육·정보화와 소득·주거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연령불평등이 두드러진다. 교육 수준은 일정 부분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주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매우 큰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표 3). 특히 전반적인 국가간의 빈곤율 차이에 비하여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영역의 경우, 19세 이상의 19.9%가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고 있어 절대적인 수준이 높지 않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약간씩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신체활동 실천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은 높다. 또한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10.7%는 우울증상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은퇴시점과 맞물린 50세 이후부터 우울증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에서 그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⁷⁾.

한편, 우리나라의 미치료율의 연령형평성은

그림 6.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 추이: 200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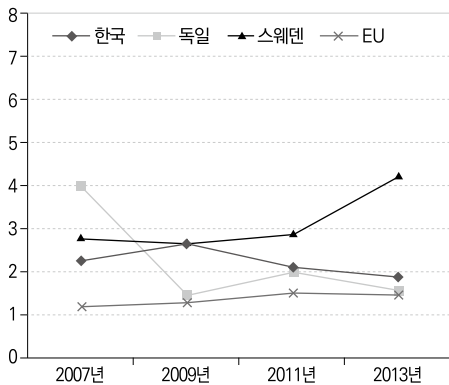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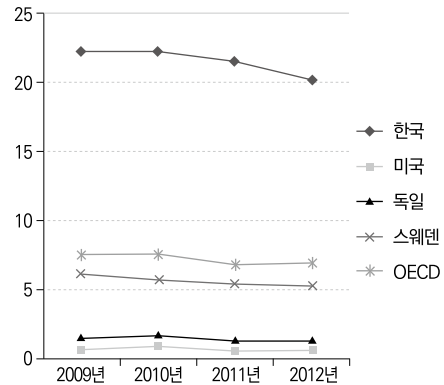


그림 7. 교육 수준에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 추이: 2007~2013년



자료 :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2) 독일·스웨덴·EU: Euro Stat
 (<http://appsso.eurostat.europa.eu>)

7) 연령군별 우울증상률: 19~29세 10.4%, 30~39세 7.6%, 40~49세 8.3%, 50~59세 13.1%, 60~64세 12.6%, 65세 이상 14.8%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년을 기점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최근 들어 그 수치가 증가한 것(연령형평성이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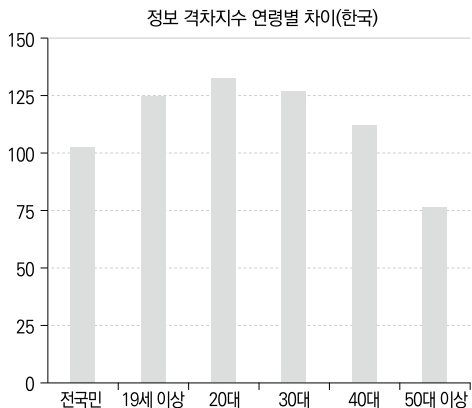
교육·정보화 영역의 경우 한국의 교육수준의 연령형평성이 매우 낮다.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은 타 국가 및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들긴 하였으나, 비교국가들 사이에서 월등하게 높은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경제수준의 향상 및 교육과정 의무교육화 등으로 인해 10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낮은 경

향을 보인다. 반면 독일, 미국 등은 전 연령별로 고른 교육 수준 분포를 나타내어 연령형평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 두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7).

정보화 수준의 경우 정보화 격차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8]에 의하면, 정보화 격차는 50대 이상에서 매우 커, 전국민 평균에 비하여 74.3%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대가 128.3%임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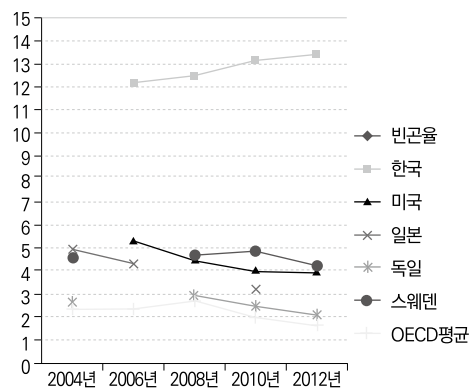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득·주거 영역의 연령형평성을 대변하는 빈곤율의 연령형평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

그림 8. 정보격차지수의 연령별 차이(한국)



주: 1) 전국민은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정보격차지수는 접근지수(7개 지표), 역량지수(15개 지표), 양적 활용지수(3개 지표), 질적 활용지수(2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됨. 현재, 연령군별로 재분석할 수 있는 원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그림 9. 빈곤율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추이: 2004~2012년



주: 1) 한국의 2012년은 2011년, 미국의 2006년은 2005년, 일본의 2004년은 2003년, 2010년은 2009년 기준임.
 2)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3) OECD평균은 연도별로 빈곤율 자료가 제공된 국가에 한한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 (<http://stats.oecd.org>)

령별 빈곤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교국가들의 감소 추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비교국가 중에서 연령별 빈곤율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독일이다 (그림 9).

4. 나가며

연령통합지표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수준이 낮고, 비교 국가들도 영역별로 연령통합 수준의 차이와 변화 양상이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향후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연령통합성의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모두에서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의 연령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학사학위를 받고서도 또 다시 다른 학문에 대한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차이는 매우 크며, 노년층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 영역에서 보다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노년층의 안정적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이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노년기의 근로의 질을 높힐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활동 영역의 경우 사회활동의 특성에 따른 연령유연성의 차이가 있어 활동별 특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고연령층의 낮은 참여가 낮은 수준의 연령유연성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고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반면 국가적 의무인 투표에서는 청년층의 소극적인 참여가 낮은 수준의 연령유연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청년층의 투표행위 등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체적 노화를 감안하더라도 우울증상률과 미치료율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령자의 경험율이 높은 등 건강영역에서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 연령군을 위한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령자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관리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하므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득·주거 영역에서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소득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후기노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고령층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층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고령층의 능력을 고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 세미나 또는 토크콘서트를 통한 인식전환,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각 개별지표의 정의에 정확히 상응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